

중소·Venture 企業의 倫理經營이 財務成果에 미치는 影響

황진욱^{1*}, 오상영²

The Effects Of Ethics Management on Financial Business Performance in Small and Venture Business

Jin-Wook Hwang^{1*} and Sang-Young Oh²

요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윤리경영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벤처기업인증을 득하고 있거나, 과거에 득한 적이 있는 기업 2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CEO의 윤리경영 의지,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을 독립변수로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성이 재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건전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f small & venture business ethical management on finance performance. We choosed 200 venture company or pre-venture company and surveyed. The indexes of ethical management consisted of CEO's intend for ethical management, fairness, That is developped by The Institute for Indestrial Policy Studies and used to assess big business company. The depedent variable is fiscal net profit. We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The finding is that the fairness is the major factor.

Key words : 벤처기업, 윤리경영, Venture Business, Ethical Management, kvaltana, CEO의 윤리경영 의지,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1. 서론

1.1 연구배경

2001년 미국정가를 강타한 엔론과 월드콤 회계부정 사건은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 여부를 거래소 상장의 기본 조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국제 기구들은 '윤리라운드'를 통해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윤리임원 협의회(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는 '기업윤리경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OECD는 1997년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의 국제시장 진입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UN은 1996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강령인 '국제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제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이슈가 되었다.[1,2,4,5]

이처럼 윤리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기업활동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4년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500개 조사대상 기업 중 45.2%가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200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한국 기업에 맞는 기업윤리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2003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윤리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1]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국내경기 활성화와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한 결과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나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¹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²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신저자: 황진욱(pauljwh@hanmail.net)

2000년 이후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파산하였다. 이러한 파산의 주요 원인이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결과로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벤처 캐피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벤처 창업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기업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벤처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높을 것이며, 또한 벤처기업의 소규모적인 특성으로 인해 벤처기업 CEO의 윤리경영의식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들을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윤리수준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orld Economic Forum(WEF)은 기업, 정부, 학계, 언론계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비영리 기구로, WEF는 1996년부터 하버드 대학 국제발전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데²⁾, 설문조사 가운데 부패와 관련된 질문으로 정부의 정실, 비정상적 금품제공, 추가적 금품 제공, 사범부패, 뇌물과 리베이트, 정보의 입수,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학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³⁾인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는

1987년부터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질문항목 중 국가단위의 기업윤리수준을 나타내는 질문만을 채택하여 국가별 기업윤리수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질문항목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 종업원 동기부여, 금융기관의 투명성, 내부거래, 윤리실천, 고객만족,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로 구성되어 있다.[1,2,5,6]

반부패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로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1995년부터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CPI는 기존의 원천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원천자료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여러 종류의 조사 가운데 부패와 다른 문제가 혼합되어 조사(질문)된 경우나 부패수준이 아닌 부패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의해 조사된 자료는 제외하고, 선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회적 사건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각 자료별로 지난 3년 간의 조사결과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1,2,5,6]

[일하기에 가장 훌륭한 포천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트러스트 인덱스(The Levering Trust Index)는 레버링이 20여 년간의 현장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엘테크(ELTech)의 연구진들이 5년간의 국내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한국어 진단도구로 완성되어 있다. 레버링의 신뢰경영지수는 신뢰(Trust), 자부심(Pride) 및 재미(Fun)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는 다시 진실성(Credibility), 개인존중(Respect) 및 공정성(Fairness)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2]

경실련은 한국 10대 그룹기업의 기업차원에서 기업 윤리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정의 기업 상'을 정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의 정도 및 기업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정의지수를 개발하였다.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는 7개 항목에 걸쳐 58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7개 항목은 기업활동의 건전성(주주구성, 투자지출, 영업활동, 자본조달의 건전성에 관한 10개 지표), 공정성(공정거래, 증권거래의 공정성, 중소기업관계에 관한 9개 지표), 사회봉사기여도(사회복지, 사회지원에 관한 6개 지표), 환경보호만족도(오염방지노력, 개선효과, 위반 및 오염실적에 관한 7개

2) 1998년부터 『African Competitiveness Report』를 별도로 발간해 오고 있다.

3) 앞에서 설명한 WEF는 1996년 IMD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지표), 소비자보호기여도(품질, 광고, 계약에 의한 4개 지표), 종업원만족도(산업재해, 인적자원투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11개 지표), 경제발전기여도(연구노력개발, 연구개발성과, 경영경제적성과, 고용창출, 대외교역에 관한 11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제정의수준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 두었다.[2]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KoBEX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공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사용한 KoBEX지표는 기업의 건강한 기업활동 장려를 목표로 삼고, 윤리경영의 행동지도원리인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의 세차원에서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고 있다.[1,2,4]

한편,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한수(2003)는 윤리경영의 실천사례를 정리하고, 국내의 전경련의 발표 자료와 해외의 경우 포천(Fortune)지의 조사를 인용하여 기업윤리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이윤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8] 또한 윤대혁(2004)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거나 상장이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경영자의 윤리수준을 개인적인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종속변수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10] 그 결과 경영자의 개인적 차원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지며, 조직차원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적응성과 풍토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신뢰성과 사회관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평량, 김운호는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태도, 환경생태보호도, 경제발전 기여도, 사회봉사 기여도,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9]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경영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중소기업의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윤리경영은 기업특성

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평가모형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주요기업의 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KoBEX 지수의 평가 모형을 수용하여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과 CEO의 윤리경영 의지를 독립변수로,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윤리경영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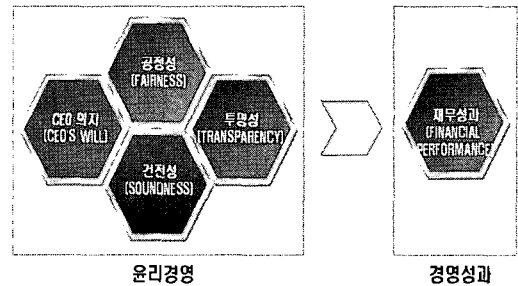


그림 1. 윤리경영 평가 모델

이상의 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중소·벤처기업 CEO의 윤리경영 의지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중소·벤처기업의 공정성(Fairness)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중소·벤처기업의 투명성(Transparency)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중소·벤처기업의 건전성(Soundness)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및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벤처기업 인증을 득하고 있거나, 과거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적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리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연구수행의 지역적·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을 서울경기지역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기업은 임의로 선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한달 보름간 총 160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설문지 중 답변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특정번호에만 집중적으로 응답하였거나, 최종 문항까지 응답하지 않은 33부의 설문은 분석 자료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12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0-10점을 부여하였으며,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표 1]은 등급화 방식이 적용된 예이다.

표 1. 등급화 예

구분	기준	평점
①	8회 이상	10
②	6-7회	9
③	3-5회	8
④	1-2회	6
⑤	강조안함	0

예) CEO의 윤리경영 강조

3등급 문항의 경우에는 각각 8, 5, 0점을, 2등급 문항의 경우에는 5, 0점을 부여하였다. 동일지표에 대한 질문이 복수이기 때문에 각 문항점수를 합산한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예) CEO의 의지

- 문항 수 : 2 문항

- 점수 : (윤리경영의지 + 솔선수범)/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의 분석

4.1 빈도분석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 중 지난 1년간 CEO가 윤리경영을 8회 이상 강조한 기업은 11개(8.66%), 6~7회는 23개(18.11%), 3~5회 34개(26.77%), 1~2회가 42개(33.07%), 한번도 강조하지 않은 기업은 17개(13.39%)로 응답하였다. 윤리경영에 솔선수범을 보인 횟수는 2회가 12개(9.45%) 기업, 3회 72개(56.69%), 4회 이상 43개(33.86%)로 응답하였다.

또한 윤리강령 또는 행동준칙에 윤리경영 관련항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40개(31.50%), 1~2개 2개(1.57%) 기업, 3~4개 19개(14.96%) 기업, 5~6개 28개(22.05%) 기업, 7개 이상이 38개(29.92%) 기업으로 응답하였다. 윤리경영 담당부서 및 규모에 대한 응답에서는 74개(58.27%) 기업이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없으며,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7개(37.01%) 기업이 부서는 없고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고, 단 6개(4.72%) 기업만이 부서도 있으며,

과장급 이상이 윤리경영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6개(51.97%) 기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54개(42.52%) 기업은 향후 구축예정이며, 7개(5.51%) 기업은 유사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74개(64.35%) 기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41개(35.65%) 기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윤리적 경영이념 명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4개(66.14%) 기업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43개(33.86%) 기업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간 윤리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2개(25.20%), 2시간 미만 21개(16.54%), 2시간이상~3시간 미만 24개(18.90%),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34개(26.77%), 4시간 이상 16개(12.6%)로 응답하였다. 윤리교육 참석률은 90%이상은 17개(13.39%), 80%~90%미만은 21개(16.54%), 70%~80%미만은 34개(26.77%), 40%~70%미만은 23개(18.11%),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32개(25.20%)로 나타났다. 윤리적 성과 평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개(43.31%), 유사항목 평가가 52개(40.94%), 공식적 평가는 20개(15.75%)로 나타났다. 윤리적 성과를 인센티브에 반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4개(50.39%)의 기업이 반영하는 것으로, 63개(49.61%)의 기업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설문지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CEO 의지,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의 내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내적 일관성이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거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Alpha(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α) 계수가 0.6 이상이면 분석 가

표 2. 빈도분석의 결과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CEO 의지	윤리 경영의 중요성	강조 안함	17	13.39	13.39
		1~2회	42	33.07	46.46
		3~5회	34	26.77	73.23
		6~7회	23	18.11	91.34
		8회 이상	11	8.66	100.00
	솔선 수법	2회	12	9.45	9.45
		3회	72	56.69	66.14
4회 이상		43	33.86	100.00	
공정성	윤리강령/ 행동준칙	없음	40	31.50	31.50
		2~1개	2	1.57	33.07
		4~3개	19	14.96	48.03
		6~5개	28	22.05	70.08
		7개 이상	38	29.92	100.00
	윤리경영 담당 부서/규모	부서 없으며 담당자 없음	74	58.27	58.27
		부서 없으며 담당자 있음	47	37.01	95.28
		부서 있으며 책임자 과장 이상급	6	4.72	100.00
	윤리경영 지원제도	없음	66	51.97	51.97
		향후 구축예정	54	42.52	94.49
유사제도 통한 지원		7	5.51	100.00	
투명성	윤리강령/행동준칙 위반사항 공개여부	공개 안함	74	64.35	64.35
		공개 함	41	35.65	100.00
	윤리적 경영이념 명시	명시 없음	84	66.14	66.14
		유사항목 명시	43	33.86	100.00
건전성	윤리관련 교육시간	안함	32	25.20	25.20
		2시간 미만	21	16.54	41.73
		3시간 미만	24	18.90	60.63
		4시간 미만	34	26.77	87.40
		4시간 이상	16	12.60	100.00
	윤리관련 교육대상	없음	32	25.20	25.20
		40~70%미만	23	18.11	43.31
		70~80%미만	34	26.77	70.08
		80~90%미만	21	16.54	86.61
		90%이상	17	13.39	100.00
	윤리적 성과 평가	평가 안함	55	43.31	43.31
		유사항목 평가	52	40.94	84.25
		윤리성 공식적 평가	20	15.75	100.00
	윤리적 성과 인센티브	없음	64	50.39	50.39
있음		63	49.61	100.00	
재무성과 (단위:백만원)	20 미만	24	18.90	18.90	
	20~40 미만	21	16.54	35.43	
	40~60 미만	36	28.35	63.78	
	60~80 미만	18	14.17	77.95	
	80~100 미만	14	11.02	88.98	
	101 이상	14	11.02	100.00	

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설문지에 대한 각 요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평균값 분석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 실시한 결과는 CEO의지(.60), 공정성(.74), 투명성(.68), 건전성(.81)의 모든 항목에서 신뢰성이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각 문항을 측정하여, CEO의지,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3 상관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기법이며, r의 값이 -1이나 1에 가까우면 산점도에 표시된 점들은 거의 직선적인 관계를 이루고, 반대로 0에 가까우면 원의 형태로 무작위하게 나타나거나 이차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위하여 각 항목별 부여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CEO의 의지,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이 각각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관분석에서 r값이 0.6이상이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CEO의 의지와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r값이 .68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성(Fairness)와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r값이 .807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명성(Transparency)과 재무성과와의 상관분석에서도 r값이 .823으로써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전성(Soundness)과 재무성과와의 상관분석에서도 r값이 0.801으로써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CEO의 의지,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모두가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와의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구분	CEO의지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재무성과
CEO의지	1.00				
공정성	.613***	1.00			
투명성	.619***	.712***	1.00		
건전성	.634***	.694***	.783***	1.00	
재무성과	.681***	.807***	.823***	.801***	1.00

***p<.001

4.4 회귀분석

CEO의지,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에 따라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에서 다중회귀모형에서 검정통계량 값 F=117.892이고, p-값이 0.001보다 작으므로 모든 β가 동시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재무성과의 변화를 설명하는 4가지 독립변수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다중회귀함수의 계수의 분석은 공정성(β₁=3.757), 투명성(β₂=2.543)이 건전성(β₃=2.016), CEO의지(β₄=2.178)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CEO의지,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이 높아지면 재무성과도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hat{Y} = 10.69 + 3.757X_1 + 2.543X_2 + 2.016X_3 + 2.178X_4$$

X₁ = 공정성, X₂ = 투명성, X₃ = 건전성, X₄ = CEO의지

[표 4]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추정 회귀 계수 (β)	표준 오차	T for HO	p>ITI	R ² (Adj R ²)	F
재무성과	Y절편	10.690	6.637	1.611	.110	.811 (.804)	117.892***
	투명성	2.543	.579	4.392	.000		
	공정성(β ₁)	3.757	.710	5.291	.000		
	건전성	2.016	.619	3.258	.001		
	CEO의지	2.178	.988	2.204	.030		

***p<.001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귀무가설은 각각 회귀계수가 양수로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value 값이 모두 귀무가설 기각역에 포함하는 0.05이하의 값으로 가설을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 가설의 단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중소·벤처기업 CEO의 윤리경영 의지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t{Y} = 10.69 + 2.178X_1$$

<가설2> 중소·벤처기업의 공정성(Fairness)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t{Y} = 10.69 + 3.757X_1$$

<가설3> 중소·벤처기업의 투명성(Transparency)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t{Y} = 10.69 + 2.543X_1$$

<가설4> 중소·벤처기업의 건전성(Soundness)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t{Y} = 10.69 + 2.016X_1$$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CEO의 윤리경영 의지,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성이며, 투명성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재무성과가 중소·벤처기업 구성원들의 사기와 의욕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공정성이 높을 때 종업원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사기가 높아져서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명성, 공정성에 비해서 건전성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기업의 건전성은 투명성과 공정성 등 윤리경영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향상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 인력규모가 작고, 또한 대부분이 창업자인 CEO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EO의 윤리경영의지보다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한 CEO의 윤리경영 의지만으로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제도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6.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재무성과를 사용하였으나 윤리경영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몇 년간의 주가 상승율의 추이, 매출액 영업 이익률 추이, 주주 만족, 기업부가가치 등을 기업의 재무성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비상장회사들이 대부분인 관계와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년도의 재무성과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1] 산업자원부, “2005년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 2006. 2.
- [2] 산업정책연구원, “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02. 11.
- [3] 이춘우,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제34권 제2호, 2005. 4.
- [4] 한국기업평가원, “벤처CEO 도덕성 평가지표 개발연구,” 2005. 1.
- [5]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센터, “국내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현황과 과제,” 2005. 10.
- [6]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현황과 경영성과 연구,” 2004. 2.
- [7] 최숙희,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이론 분석,” 벤처경영연구, 제5권 제2호, 2002. 7.
- [8] 한한수, “기업 윤리경영이 생산성이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제17권 제3호, 2003. 12.
- [9] 위평량, 김운호, “윤리경영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2.
- [10] 윤대혁, “중소기업경영자의 윤리수준과 경영성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제26권 제4호, 2004. 12.

황진욱(Jin-Wook Wh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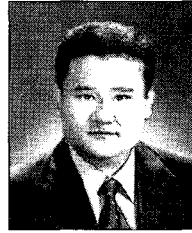
- 1978년 2월 :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과 (공학사)
- 1992년 2월 : 명지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6년 12월 :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 2003년 1월 ~ 현재 : 수퍼농산
(주) 대표

<관심분야>

윤리경영, 리더십(지도자론)

오상영(Sang-Young Oh)

[정회원]



- 1992년 2월 : 청주대학교 응용통
계학과 (경제학사)
- 1996년 8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
과 (경영학석사)
- 2001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
과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
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KMS, 혁신이론, e-Biz, BSC